

축산물등급판정소 서울지역본부 현장체험을 다녀와서 ...

강원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낙농자원학과 강민수

1학기가 끝나갈 즈음에 학교 게시판에 축산물등급판정소 실습생 모집 안내가 게재되었다. 4학년인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인턴 하라"고 말리는 이들도 많았고, 내심 인턴 자리가 아깝기도 했지만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더 큰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야 신중하게 되었다. 우선 이론적으로만 배웠던 가족의 도축, 등급판정, 경매 등의 과정을 한 번에 볼 수 있었으며, 닭·계란 등의 등급판정 과정 또한 이해되었다.



이제 다음 마지막 학기가 끝나게 되면 나도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된다. 비록 일주일 동안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니지도 배울 수 없는 중요한 것들을 마음에 담고 간다. 이번 실습을 통해서 비록 경력란에 보이 지는 한 줄은 채우지 못했지만 내 마음속의 한 줄을 채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강원대학교 동물자원과학대학 동물자원학부 이은솔

방학을 이용해 축산물등급판정소 실습을 나가게 되었다. 건학은 가 보았지만 실습 경험이 없는 나에게선 직접 현장에 나가 등급판정사 분들께서 하시는 일들을 직접 보고 들으며 궁금했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처음엔 위험 요소가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의 안전을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한번은 직접 도장을 찍을 기회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잘 찍히지 않아서 작은 부분 하나하나가 노련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실습 마지막 날은 (주)한예들과 계란집하장인 SY푸드를 견학을 하여 계란등급판정에 대한 것들을 들었는데, 수업시간에 배우고 싶었던 것들이 실제로 쓰이고 있어서 더 이해가 빨리 되었다. 등급판정일은 이자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이번 실습을 통해 축산물등급판정사에 도전해 보고 싶어졌다.



강원대학교 동물자원과학대학 동물자원학부 정진영

4학년 1학기가 끝날 무렵 게시판에서 방학 중 축산물등급판정소의 실습 공지를 보았다. 지금까지 이렇다 할 실습 한 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단기간 집에서 다닐 수 있다는 생각에 신중하게 되었다. 등급판정에 대해서는 수업시간에 여러 번 배운 적이 있었지만 실제 우리나라에서 등급판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잘 몰랐을 뿐만 아니라, 나처럼 녀치도 작고 힘도 약한 이자가 하기엔 일이 거칠고 현해 보여 조금 걱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실습기간 내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했다. 이런 가운데 짧은 1주일간의 실습동안 등급판정을 직접 배울 수 있었고, 친절함 서비스를 몸소 실천하시는 멋진 분들을 만날 수 있어 정말 좋았다. 한여름 에넵실과 마쌀의 기온차가 너무 커 고생하시는 판정사 선배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멋진 선배님들과의 인연이 계속... 쫓... 지속되길...